

※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코코스는 '한알의밀'을 의미・발행인 강우정・편집주간이강동・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TEL 02-950-5401・www.bible.ac.kr

개교 71주년을 맞아 드림총학생회가 주관한 '밀알축제'에 인기 랩퍼 디핵(무대 오른쪽)이 디제이와 함께 대표곡 'OHAYO MY NIGHT'를 열창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기쁘고 기쁜 소식 - 불신학우 88 명 결신

「53 전도집회」통해 . CCC 송성은 간사 인도

기쁘고 기쁜 소식이다.

우리 학우들 중에 믿지 않는 학우 88 명이 지난 5월 3일 전도집회 (CCC 송성은 간사 인도)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우리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크시겠는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눅 15:24). 88 명의 새 아들과 딸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뿌리 내리도록 모두의 기도가 요청된다.

이번 전도집회 (이하 53 전도집회)는 지난 5월 3일 수요일 오후 1시 40분 전도훈련시간에 전교생을 상대로 로고스홀에서 가졌다. 송성은 간사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와 주신다"고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험난했던 자신의 삶에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셨던 여름수련회의 기억을 언급하였다. 그는 이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초청했다. 눈을 감고 있던 학우들 가운데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학우가 있었고 곧이어 오늘 복음을 듣고 믿기로 한 사람들이 설문지에 자신의 결단을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결신 학우들에 대한 양육 교육은 제 1 기 17 명이 17 일과 24 일 , 제 2 기는 24 일과 31 일에 5 명이 받았다 . 송성은 간사가 이 교육 시간에 ' 하나님이 나를 연주한다 ' 와 ' 하나님 의 사랑은 앓음답다 (= 아름답다)' 주제를 다루었다 . 양육교육 시간은 일반 학우들에게도 문을 열어 놓았는데 제 1 기 35 명 , 제 2 기 6 명이 참여해 새 결신학우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 송 간사는 「53 전도집회」를 " 자신의 캠퍼스 사역 가운데서도 이번 결실 만큼은 매우 이례적이고 대단한 사건이라 " 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

올해 「전도의 해」 1 학기 목표는 「믿지 않는 학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학우들 중 151 명 (재학생의 15.6%, 교목실 신앙상담결과)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스스로 밝혀 실망이 크던 차에 「53 전도집회」를 통해 복음의 큰 수확을 얻게 된 것이다. 결신학우 88 명은 사복 24 명 (27.27%), 영보 15 명 (17.04%), 컴소 22 명 (25%), 간호 27 명 (30.68%)이다. 학년별로는 1 학년이 36 명 (40.90%)으로 단연 많았고 2 학년 18 명 (20.45%), 3 학년 23 명 (26.13%), 4 학년 11 명 (12.50%)이었다.

졸업을 앞둔 고학년도 불신학우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도의 시급성을 말해주는 지 표라 볼 수 있다 .



▲ CCC 송성은 간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행 20:28~35)

구광면 목사 (교목실) "인간은 열대우림의 선인장이다."『도파민네이션』책에서 본 내용이다. 건조기후에 살아가는 선인장이 열대우림에 던져진 것처럼현대인들이 과도한 도파민에 둘러싸인 환경에 살고 있음을 비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기독교인들은 좋은 신앙생활 환경에서 살고있다. 개인 영성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하지만, 좋은 환경이 기독교인들을 「열대우림의 선인장」이 되게 할 수 있다.

바울은 3 차 전도 여행 중, 핍박을 피해 밀레도에 머물렀다. 에베소도 일정 때문에 들르지 못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사람을 보내 장로들을 초청한다. 그리고 장

로들에게 고별인사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당부의 말을 전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25)하심을 기억하라는 내용이다.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바울의 당부가 받는 것에 익숙했던 우리에게 타 인과 나누며 사는 전도자의 삶에 대해 생 각하게 한다 . 은혜받는 것 , 섬김받는 것 ,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면 ' 열대우림의 선 인장 ' 과 다르지 않다 . 척박한 환경에서 도 받은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면 남도 살 리고 , 나도 살 수 있다 .

개교 71 주년 (1952~2023) 기념예배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지 않을 것"



▲ 혀희철 목사

우리 대학의 개교 71 주년 (1952~2023) 기념 예배가 12 일 오전 12 시 로고스홀 에서 개최됐다. 현희철 (28 회, 중앙성서교회) 목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대하 30:12) 로 설교하였다.

현목사가 "세상의 진리는 나날이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반석과 같다. 우리 KBU 는 가장 영원한 말씀을 기반으로 설립된 하나님의 대학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명령을 이어갈 때 백성들은 크게 감동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성서 대학의 지난 71 년을 최고의 가치인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다. 말씀은 우리의 본분이며 교과서이다. 4 년간 말씀 그대로를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빛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 "이라고 말씀하였다.

강우정 총장은 "이 학교를 세우시고 지난 71 년간 지켜 주신 하나님과 그동안 주의 사명을 감당해 준 교수, 교직원과 총학에 감사한다. 지금 대학은 학생 수 격감, 정부 의 통제, 재정압박의 3 중고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지 않겠다 는 결단을 새롭게 하며 주께서 맡겨준 복음전도자 양성의 교육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한국성서선교회 (총회장 현희철 목사)는 지난해 이어 학교에 발전기금 1 천만 원을 전달하였다.임지영(컴소)교수에게는 장기근속자(20년) 포상이 수여되었다.

이에 앞서 윤두태 (25 회, 가성교회) 목사가 기도, 장익봉 (39 회, 본교 법인 감사) 목사가 축도하였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요 주인"

4 학년 주관 예배 사명자의 순종의 자세 강조



▲ 강찬희 학우

2023 학년도 1 학기 4 학년 주관 예배가 5 월 15 일부터 26 일까지 2 주간 진행되었다.

15 일 강찬희 학우가 ' 못 정함 '(막 5:24~25) 으로 말씀을 전했다. "12 년째 혈루 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 희망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치유함을 얻었다."이어 "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방법은 다 내려 놓고 주 님께 향하는 믿음을 따라야 한다. 인간의 힘과 능력, 재물로는 정함을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해답이요 주인 " 이라며 우리 모두 생활 신앙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박예성 (컴소) 학우는 간증에서 "학교 입학 후 성적과 의욕까지 완전 바닥권을 헤맸다 . 무작정 학교가 싫었고 탈출구는 군 입대 . 면담에서 교수님은 ' 예성아 , 네가 어떤 삶을 살든지 너는 여기로 돌아와야 해 ! ' 속으로 강하게 부정하였지만 전역 후 학교로 돌아왔다 . 코로나 사태 이후 IT 업계가 급부상 전공에 대한 전망이 밝아졌다 . 나는 몰랐지만 나의 선택에 하나님이 계셨다 .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그 선택은 반드시 주님과 동행이 전세된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고 말하였다 .

2 주간 진행된 4 학년 주관 예배 간증자 및 설교자와 설교제목은 다음과 같다.

-1 주차 -

15일(월)▲인치준(컴소)▲강찬희 '못정함'

16일(화) ▲ 박예성(컴소) ▲ 최주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

17일(수)▲이삭(컴소) ▲ 김진왕 '갓생'

18일 (목) ▲ 황재민 (컴소) ▲ 함준헌 '끝까지 사랑하세요'

19일(금)▲김민형(컴소)▲이현익'그림자'

-2 주차 -

22 일 (월) ▲ 이동현 (사복) ▲ 전민혁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23일(화)▲이상형(사복)▲김애리 '36.5°'

24일 (수) ▲ 윤성준 (사복) ▲ 채희선 '특별한 비밀이야'

25 일 (목) ▲ 장혜란 (영보) ▲ 양명철 '사랑의 언어'

26 일 (금) ▲ 황다정 (사복) ▲ 양승호 '크리스천 패션 지침서'



드림총학 '한여름밤의 크리스마스'

드림총학생회 (회장 오동영)는지난 12일개교 71 주년을 맞이하여 밀알축제를 펼쳤다. 주제는 '한 여름밤의 크리스마스', 오월의 크리스마스 (ㅇㅋ)와 드림의 크리스마스 (ㄷㅋ)가 부제다. 총학은 메인 콘서트장에 크리스마스 느낌을 살린 강렬한 작·녹색 배경무대와 곳곳에 성탄장식물로 전체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개교기념예배 후 시작된 밀알축제는 잔디밭 주변에 5 개 학과가 운영하는 학회와 10 개 동아리가 각종 먹거리를 준비하고 홍보전을 펼쳤다. 각 부스별로 즉석에서 조리한 샌드위치, 햄버거, 떡볶이, 소떡, 부침개를 비롯해 빙수와 아이스크림, 에이드 등을 판매하였다.

이 밖에도 풋살장 리플레쉬 존은 초록빛 수목 안에서 안락함을 즐겨 보려는 학우들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카페 옆 잔디밭에 크리스마스 포토 존과 원벤 일대에는 깜찍한 악세사리, 작은 소품류와 외부업체가 운영하는 푸드 트럭에 발길이 이어졌다. 사진동아리의 낮은 마당 사진 전시와, 북한선교가 목적인 모퉁이돌 선교회의 지하교회 실상을 보여주는 사진전에도 많은 관심이몰렸다.

밀알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초청 아티스트 무대에 ' 디핵 ' 과 ' 쿠기 ' 가 등장하였다. 미학적 가 사와 폭발성 있는 랩의 ' 디핵 ' 이 'OHAYO MY NIGHT' 와 'KOKO NI ARY' 등을 선사하였고, 독특한 보이스와 스펙트럼의 ' 쿠기 ' 는 ' 뭐 ' 와 'Buck' 등으로 학우들과 함께 열정 어린 무대를 녹여냈다. 노크 (노래할까요 크리스마스에) 와 장기자랑 코너에서는 학우들의 범상치 않은 노래실력과 장기자랑이 감동과 웃음을 자아내며 환호성을 울려 주었다.

이번 밀알축제는 코로나로 지난 3 년간 중단됐던 축제의 끈을 다시 잇게 해 준 특별한 시간이었다. 드림총학생회 오동영 회장은 오월에 맞는 크리스마스 축제에 수고와 사랑으로 섬겨준 총학임원진과 학회 및 동아리 회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학생 – 교수 간 공동프로젝트 학술제

전공역량과 팀 학습능력 향상 학우 60 명 참여



▲ 연구 프로젝트 발표를 마친 학우들과 강우정(앞줄 가운데)총장

2022 학년도 대학혁신사업으로 진행된 「학생 - 교수 공동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 하는 학술제가 9일 오후 4시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공동프로젝트는 학생과 교수가 한 팀이 되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공동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단행본 발행이나 SCI 급 학술지 게재를 목표로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참가자들은 전공역 량과 팀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10 개 팀에 학생 60 여명이 참가하여 2 개팀은 결과물을 책으로 출간하였고, 8 개 팀은 전공 관련 학회지 게재의 성과를 이뤘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각 팀별 5 분 내외로 연구의 목적, 과제의 선정, 연구 결과 등을 발표하였다. 참석자들은 연구의 높은 수준과 큰 성과에 힘찬 박수를 보냈다.

권면에 나선 강우정 총장은 "교수와 학생이 한 팀이 되어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연구와 연구결과가 놀랍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어 우리 대학이 일반대학과 '다른 대학'이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연구에도"한국성서대학만의 컬러가 가미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 붙였다.

일립대학 최은희 학사부총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10 개 팀이 참가해 큰 성과를 보여줘 고맙다"고 말하고 "2023 년에는 18 개 팀이 참여할 것"이라며 학우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2022 학생 - 교수 간 공동 프로젝트 팀 현황

구분	프로젝트 명	지도교수	참여학생
1	학생과 교수가 함께 쓴 구약성경읽기	강규성	정다워(4),김은형(4), 박수현(4), 이민규(4), 이한솔(3), 장다솜(3) (전원 성서)
2	요한복음 축귀부재	이민규	강태헌(4),김소의(4), 김성아(4) 추요셉(4) 조성민(3), 최재영(2) (전원 성서)
3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연구	김웅기	이주찬(컴소3) 박소연(성서3) 박재찬(성서2), 신송연(성서3) 이수원(성서3), 조민영(성서3)
4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사 힐링 프로그램	김정원	김가람,나혜영,심채은,원유민,이리안, 최정안 (전원 영보4)
5	장애통합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특수교사를 통한 편의시설 현재 실태와 지원요구	조윤경	김단비, 김수정, 박수현, 이민규(영보 4), 이한솔, 장다솜(영보 2)
6	이미지 평활화와 축소를 이용한 효율적인 대규모 데이터세트 구축	임지영	김윤서(4), 김준범(4), 박세윤(2),이삭(4), 이선재(3),이현우(3),황재민(4) (전원 컴소)
7	사용자의 시선추적과 입력요소 분석을 통한 비접촉 입력 시스템 개발	임지영	김윤서(4), 김준범(4), 박세윤(2),이삭(4), 이선재(3),이현우(3),황재민(4) (전원 컴소)
8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소희	이정민, 김민경, 김수아, 김주은,노윤서,이다원, 이소희 (전원 간호4)
9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학습실재감, 성취동기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소정	김민지, 김산, 김소미, 김은채, 나예린, 문정원, 안성민(전원 간호4)
10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그릿 및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최은희	안민호, 문혜진, 구본주,박정현,이가현, 이예은A, 이예은B, 이하람 (전원 간호 4)

최우수 교직원 양희정 팀장 배민정 직원

최우수 부서 사무관리팀 . 입학관리팀



▲ 양희정 팀장



▲ 배민정 직원

우리 대학 2022 년도 최우수 팀장으로는 양희정 (평생교육원) 팀장이, 최우수 직원에는 배민정 (입학관리팀) 직원이 선정되었다. 최우수부서는 사무관리팀과 입학관리팀이 뽑혔다. 최우수 팀장과 최우수 직원 평가는 교육훈련과 신앙 봉사영역을 기본으로 업무실적과 부서장 평가가 더해져 최종 선정 된다.

양희정 팀장은 노원구청과 연계하여 노원평생학습대학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모리 아관 강의시설 개보수를 이루어 냈다. 양 팀장은 " 어려운 상황에서도 호흡을 맞춰 성실히 함께한 팀원들의 노고로 가능한 일이었다"며 모든 공동체와 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배민정 직원은 입시 현장 방문과 각종 SNS 활동을 통해 신입생 유치에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다. 그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배움의 자세로 열심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24 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평가

우리대학 10 개 재정진단 지표 최우수 수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은 5월초 우리 대학이 2024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가능대학이라는 평가 결과를 통보해 왔다. 평가는 교육비환원율 등 10개 지표를 학교 재정의 관점에서 진단하였는데 우리대학은 모든 지표에서 월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표참조)우리대학이 이 자리에 서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재정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오는 2025 년부터 대학 평가는 중요한 두 축으로 이루어 지는데 하나는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이고 다른 하나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이다. 재정진단에 합격하지 못하면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되어 대학에 주어지는 일반재정지원 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재정진단은 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학 결산서 상 재무지표를 활용 · 분석 , 운영손실 , 부채비율 등 재정진단을 통해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교육부 관계자는 " 재정진단은 각 대학이 사학진흥재단에 매년 제출하는 예 · 결산분석 자료를 활용하므로 대학에 별도의 부담은 없을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그는 이어 " 회계부정 , 지표조작 등 중대한 비위가 발견된 대학은 엄정 처분하고 고발 · 수사의뢰로 사법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 " 이라며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4 학년도	정보재정지	위제하대하	기정	펴기	- 견규
ZUZ4 3 7 1	. 여도/비 여기	건가에만나다락	ᄱ	~ ~ I	24

	1.1	1.2	2.1	2.2	2.3		3.1		3.	.2	
지표명	교육비 환원 <u>율</u>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u>졸</u> 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대학책무성 (패널티유무)		결 과	
						법정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	법인 책무성	부정비리 사안	정원감축 권고	
본교 지표값	169.655	77.192	100.000	104.372	83.333	89.420	81.364	-	-	-	
충 <u>족</u> 여부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해당없음	해당없음	재정지원 가 능 대학

소규모대학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마련

대교협 TF 팀 구성 위원에 강우정 총장 등 6 명 위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 회장 장제국 동서대 총장)는 지난 5월 소규모대학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정책 개선방안을 발굴,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언론 등을 대상으로여론을 형성하기위한 「소규모대학지원 TF 구성·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소규모대학은 설립의 특수성은 물론 규모의 큰 차이에도 소규모 대학 지원을 고려한 정책을 따로 마련한 적은 없었고 정책 수립용 TF도 이번이 처음이다. 소규모대학은 그동안 정부가 하나의 잣대로 재학생 수 만명 대학이나 몇 천명, 몇 백명의 대학을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나 소 귀에 경읽기였다.

대교협의 인식 변화로 소규모대학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으며 교육부 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해 볼만하게 되었다. 이번 변화의 중심에는 대신대학교 최대해 총장 (한국 신학대학총장협의회 회장) 과 이상희 가야대 총장이 있다. 이들은 대교협 이사로서 이 사회와 총회에서 소규모대학을 위해 끊임없는 발언을 하며 힘을 써 왔다.

「소규모대학지원 TF」는 위원들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소규모대학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정책포럼 등을 개최하여 공론화를 촉진하고 결과 확산에 노력한다 . 도출된 정책을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소규모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하게 한다 . 소규모대학은 입학정원 1 천명 미만인 대학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국공립대학을 제외한 185 개 사립대학 중 66 개 대학 (35.68%) 이 이 범주에 속해 있다 . TF 발족 및 1 차 회의는 오는 6 월 20 일 대전에서 열린다 .

대교협은 TF 위원으로 지역, 규모,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우리대학의 강우정 총장 등 6 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다.

소규모대학지원 TF 위원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최대혜 (대신대학교 총장, 경북) △ 위원: 강우정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서울) / 이상희 (가야대학교 총장, 경남) / 이선재 (광주대학교 총장, 광주) / 윤옥현 (김천대학교 총장, 경북) / 황윤원 (중원대학교 총장, 충북)

간호학과 '제 12 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온전한 간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

대는 생활으로 보고 생물을 보고 있다. 대한 생활으로 보고 생물을 보고 있다. 대한 생활으로 보고 있다. 대한 생활으

▲ 간호학과 3 학년 학우들의 나이팅게일 선서식

'제 12 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이 2 일 오후 로고스홀에서 개최하였다.

선서식은 촛불의식 진행을 위해 먼저 로고스홀 내부 소등과 함께 시작됐다. 56 명의 학우들은 2 명씩 대오를 이뤄 전면으로 향했고 4 학년 김민경, 유하은 학우로부터 촛불을 점화 받고 단상에 자리하였다. 이어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라며 의연하고 절제된 표정으로 선서에 임했다.

강우정 총장이 " 여러분은 강도 높은 신앙과 교육훈련을 통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온전한 간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앞길에 많은 고난이 놓여 있지만 인내하며 넘어서길 바란다. 우리 대학 간호학과 졸업생은 머무는 병원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전통을 갖고 있다. Never give up! Never never give up!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힘들 때 아픔을 함께 나눌 것이다. 말씀 안에서 사명을 실천하는 학우가 되어 달라 "고 축사하였다.

김조자 교수는 "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신앙에 기초한 박애와 봉사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전문 간호인 " 이라며 일생을 조명했다 . " 여러분 모두 주의 부르심에 따라 복음전도자의 소명을 감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동행해 줄 것 " 이라며 격려하였다 .

강규성 부총장이 " 아픈 자의 육체와 영혼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언어와 몸짓으로 소통하며 헌신하는 전도자가 되어 달라 " 고 기도하였다. 후배들은 선배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멋진 율동과 찬양으로 응원해 주었다. 지난 3 년간 코로나로 가족 참여가 중단되었으나 이번에는 가족 친지 40 여명이 참석하였다.

월계종합사회복지관 개관 30 주년 국내 최고의 사회복지기관으로 자리 매김



▲ 2016년 10월 수상한 대통령단체표창 리본

월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오동준) 이 개관 30 주년 (1993~2023) 을 맞아 6 월 14 일 기념예배와 기념세미나를 갖는다.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01 년 우리 대학 운영법인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이사장 반종원) 이 노원구청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최선희 (사복) 교수가 관장으로 취임, 낙후된 조직과 운영 기반을 대대적으로 혁신시키며 발전 토대를 구축했다. 이후 신영자 관장 (2005년) 의 창의적 사업 운영과 리더쉽 발휘로 최우수기관 반열에, 현 오동준 (2020년) 관장은 기관을 복지관계의 롤모델로 정착시키며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월계종합복지관은 39명의 직원이 4개부서 76개단위 사업을 촘촘히 운영, 일일 평균 1,200명이 이용할 만큼 주민의 전적인 신뢰와 선도적 복지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월계는 지난 2003 년 아름다운 이웃 월계사랑커뮤티티를 발전시켜 2005 년 서울시로부터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 최우수프로그램을 수상하였고 서울시 종합 사회복지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09) 및 스마일 멘토링 나눔국민대상 대통 령상 수상의 저력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국내 사회복지기관들이 롤 모델로 선정하는 등 수준 높은 복지행정과 운영 역량을 보유한 명실공히 전국 최상위복지기관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개관 30 주년 기념예배에서는 강규성 교목실장이 설교, 강우정 총장이 격려사를 한다. 기념세미나는 김선화 부장 ' 미션, 비전으로 하나 되는 조직만들기 ' 와 최미 정 팀장 ' 월계사례관리 모델의 변천사 ', 문유나 팀장이 ' 월계커뮤니티케어 사업으로 본 지역사회통합위기 돌봄 ' 을 주제로 발표한다.

몽골 4 개 대학과 MOU 협정 교육 및 연구자료의 교환 등 공동 노력



▲ 몽골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와 협정식을 마치고 관계자가 함께 하였다.(왼쪽부터 국제울란바타드대학교 윤준호 대 외협력처장, 강요열 총장, 성서대 강우정 총장, 최은희 학 사부총장)

한국성서대학교와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총장 강요열) 가 8 일 밀알관 회의실에서 MOU 협정식을 가졌다.양교는 '교육 및 연구자료 교환', '교수와 직원 및 학생교환' 외에 '문화체험 프로그램 공유'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국제울란바타르대학 강요열 총장은 인사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한국 성서대학교와 협력하게 돼 감사하다 . 귀한 파트너 십을 발전시켜 주의 나라 확장에 함께 노력하자 "고 인사했다 . 국제울란바타르대학은 1995 년에 한국인 선교사가 몽골에 설립한 최초의 대학이다 .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5 개 대학 13 개 학과 28 개 전공을 비롯 . 유치원과 초 · 중 · 고교도 운영하고 있다 .

이에 앞서 국제교류원 (원장 최육렬)에서는 지난 4월 17~22일까지 몽골을 방문 '울란바타르에르뎀대학교', '이크자삭대학교', '시티대학교'등 3개 대학과 각각 MOU 협정을 맺었다. 최 센터장과 이인영 부원장은 한국 유학을 희망중인 지원자 150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학 상담을 가졌다.

사무관리팀에 박명우 직원 임용



▲ 박명우 직원

사무관리팀에 박명우씨가 임용되었다. 박명우 직원은 2017 년 본교 사회복지학과 를 졸업하고 ㈜ EG 사에서 6 년간 물자 구매, 총무, 행정 분야를 감당해 왔다.

" 귀한 모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성서공동체에 감사 드린다 . 우리 학우들이 예비 복음전도자로 잘 성장하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 섬기며 헌신하겠다 " 라고 밝혔다 .

그는 사무관리팀에서 관재 (管財), 계약, 자산관리와 기타 총무 업무를 담당한다.

강규성 교수와 제자 6명 공저 (共著) 「구약성경읽기 I」출간



강규성 (성서학과) 교수와 김은형 등 제자 6 명 (전원 성서학과) 이 공저 (共著)로 「구약성경읽기 I」을 출간하였다. 기존의 구약개론 교재가 대학 신입생에게는 다소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전체 흐름과 전문용어, 내용 이해가 쉽도록 구성했다. 책은 각 성경별로 흐름, 구조, 그리고 핵심 스토리의 본질을 짜임새 있게 제시하며 구약을 관통해 간다. 구약 이해를 위한 기초와 사무엘서 읽기 등 12 개 쳅터로 학생의 시각에서 이해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집하였다.

강규성 교수는 "학생은 나의 스승이며 자유와 도전, 좌절과 기쁨 속에서 변화를 모색, 성장하게 되었다. 형제가 함께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라며 책 출간에의미를 담았다.

『구약성경읽기 I_{3} 강규성 , 김은형 , 손선돌 , 양승일 , 이진규 , 이한철 , 정다워 / 홀리북클럽 / 254p / 15,000 원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직원 컬럼 반우형 목사(교목실)

역지사지(易地思之)

88명의 결신학우를 환영합니다

'오월의 크리스마스 '맞네요.

이 5월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한 자리에서 88명의 불신 학우들이 '예 수를 구주로 영접 '한 사건입니다 . 우리 대학 71 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 니다 . 강규성 교목실장이 이 보고를 하면서 "저는 3-4 명만 믿는다고 했어 도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뛸듯이 기뻤 습니다.

동구 밖 먼발치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다가오는 사람의 그림자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육감으로 아셨습니다. 아버지는 버선 발로 뛰어나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 그 날 밤 풍악을 울리며 큰 잔치가 벌어 졌습니다. 우리도 그날 밤 원밴 근처에서 통돼지 구이를 다섯 마리 쯤 구워 가며 잔치를 했어야 하는 데 미처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88 결 신학우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 저는 이 일을 떠들어 대고 싶은데 주위 교수님들이 계속 뜯어말려 진정하고 있는 참입니다. MZ 세대들은 낙 인 (烙印) 효과를 싫어한다나 뭐라나 ... 그런데 어쩌지 이미 낙인이 찍혔으 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 2:7) 라고.

88 결신학우 여러분 . 지금이 학우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 씨 뿌 리는 사람의 비유 (누가복음 8 장)에서도 이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 기까지는 많은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우선 사탄이 가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갓난 아기일 뿐입니 다. 우리 학교가 우선 급한 울타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곧 긴 여름방학으로 들어갑니다 . 그래서 방학 없이 늘 학우들을 감싸 줄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꼭 등록하세요.

88 결신학우들에게 드리는 또 하나의 권고는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의 네비게이션입니다. 나의 위치, 내가 가야 할 방향 과 그 경로, 가는 방법 등을 제시합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 대학의 성경읽기 프로그램을 따가 가세요 . 요즈음 디모데서를 읽고 있는데 그 순서 대로 따라 읽어가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 기도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말하면 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 려고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 욕심 이 배제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구하십시오. 필터링은 하나님이 하 실 것입니다.

88 학우들!이제 내 집에 왔으니, 되돌아가지 맙시다.

최근에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숨을 거둔 아이의 뉴스를 보았다. 처음 소식을 접할 때 느낀 건 살기 좋다고 말하는 서울 도심에 어린이 한 명 받아 줄 병원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라는 당혹감 이다.

그 소식을 듣던 주말, 딸이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 작했다. 병원에서 38 도 되면 바로 입원하라는 소견 을 듣고 왔는데 아이는 토요일 새벽 38.2 도까지 올랐 고 우리는 가까운 병원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다. 답 변은 병실이 꽉 찼거나 직접 오지 않으면 전화로 안내 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 결국 혜화동에 위치한 대학 병원을 무작정 찾았고 다행히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지난날 본 뉴스를 다시 찾아 보았다. 상황을 겪고 뉴스를 보니 당시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 공감되었다. 잠시 그 가정을 놓고 기도 했다. 우리가 상황을 직접 겪지 않았다면 공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이 공감 능력인 것 같다. 그 사람의 입장과 바꿔 생각하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며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리고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있어야 한 다. 진리에서는 세상과 배타적일지라도, 맡겨진 영 혼에게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을 품 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먼저 다가가야 한다.

함께 밥 먹고, 시간 보내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를 위해 기도하는 것 등 우리는 무엇으로 그 삶을 실천 할 수 있을까? 종강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함께 하 는 친구에게 작게나마 실천해 보기를 원한다. 작은 실 천이 분명히 한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공감할 때 관계는 더 극대화 될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교수 컬럼 홍소윤 교수(간호학과)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긍정적인 마음과 기술

스트레스는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대처할 때 느끼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부담입니다. 긍정적 스트레스 (eustress) 와 부정적 스트레스 (distress)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절히 대응하여 향후 삶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스트레스는 긍정적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부정적 스트레스로, 불안이나 우울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학업, 취업, 대인관계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생활에 활력을 주고 생산성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과도한 스트레스는 고립감, 무기력감, 현실 도피의 욕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태도와 기술을 개선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

첫째로,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관심사나 취미에 몰두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소통해 보세요. 자연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숲속을 산책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푸른 풍경을 감상하는 것은 마음과 몸을 진정시키는효과가 있습니다. 두 째로, 스트레스는 자신이 만든 생각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해보세요. 감사일기 쓰기는 긍정적인 정서 조성에 효과적입니다. 긍정적인 정서는 안정과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격려해주세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미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자신을 돌봐주세요.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거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학생 컬럼 장숙향 (성서학과 3)

It's not your fault

초록이 넘치는 5월, 학교 오가며 보던 나무 식물들이 말라비틀어져 생명이라고는 볼 수 없었는데, '언제'라고 반문하듯 푸르름으로 가득하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 어찌나 아름답고 넉넉한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 아름다움 때문일까? 영화'굿 윌턴팅'이 떠올랐다. 대사 중에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MIT 공대 강의실 복도에 걸려 있던 어려운 수학 문제, MIT 공대생 누구도 풀지 못한 걸 학교 청소부 윌 (맷 데이먼 분) 이 해결한다. 그는 천재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세 번의 입양 과 세 번 파양이라는 아픔이 있었다. 결코 자신이 계획하지 않 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분노와 상처, 그는 늘 패싸움과 폭력으 로 자신을 방어해야 했다. 의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 그런 그에게 사람들은 "네가 잘못한 거야, 상담을 받아"라며 강요 한다. 그 때마다 윌은 늘 비웃음과 그의 천재성으로 상담사가 먼저 손을 들도록 만든다. 그러나 숀 교수는 달랐다. 다른 이 들처럼 고상하거나 콧대 세우며 지식인임을 드러내려고 고매 하게 굴지도 않았다. 단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며 흔 들리지 않았다. 그런 숀을 윌이 스스로 다가가 만남을 택한다. 그렇게 숀을 만나서 윌이 그토록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 "….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숀 (로빈 윌 리엄스 분) 에게 안기어 우는 장면은 가슴이 찡 ~~~ 하도록 아리다.

살아오며 늘 듣는 소리가 있다. "나잇값 해야 해". 나이 먹어가며 나잇값 하라는 말이 참으로 무겁다. 돌아보면 아직도 어색하고 실수투성이인 인격으로 나이의 무거운 값을 하며 살고 있는지, 여전히 걱정스럽다. 그러함에도 숀 교수처럼 상처받은 마음을 넉넉히 품으며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진심으로 말해 줄수 있는 '나'그리고 또'나인 너 '를 기대한다.

로 지기 건 목사 컨텀



성서대학교회 담임

교사와 주일 예배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주일 학교를 온전히 다닐 수 없었습니다. 우선 주일 아침에 누군가가 저를 깨워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도 없었고 혹시 일찍 일어난다고 해도 스스로 씻고 교회에 나가야 할 영적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끔 나누어 주는 공책이나 연필이 예배의 동력이 되지 못했으니까요. 이런 저를 찾아 주는 교회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주일 오후에 반 아이들과 집 앞까지 찾아와 제 이름과 안부를 물어주었던 남자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집골목에서 함께 놀던 친구들을 앞세우고 찾아와 집 앞에서 해 줬을 그분의 기도가 제 삶 안에서 이렇게 응답 되었을 겁니다.

오늘은 주일 학교가 어려운 때에 교사들의 수고가 많은 교사 주일입니다. 요즘 교육사역위원회 리더들의 고민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고민은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교사들이 주일 예배를 부서예배로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목자상을 쓴 리차드 백스터는 목사의 가장 큰 임무는 먼저 예배자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 본 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교인에게 예배와 은혜를 말할 수 있 겠냐는 겁니다 . 가끔 제가 강단에서 "일하려고 교회 오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 성가대원은 성가를 하기 위해 , 식당 봉사자는 일하기 위해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예배입니다 . 그래서 참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가능합니다 . 성가대 솔리스트나 앙상블 멤버 면접 때 "알바생으로 오지 말라"는 말을 당부합니다 . 예배자로 오시고 교회 일원이 되어줄 것을 강조합니다 .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으로 몸의 습관을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롬 12:1) 예배자의 몸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출 34:24)은 예배의 지경이 주일에서 금요, 수요예배로 평일 새벽 기도로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곧 예배에서 자라납니다. 교사 주일을 맞아 신앙의 기본을 말해야 하는 설교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권면 드립니다. "주일 예배 꼭 드려야 합니다. 그게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무입니다."라고….이 글을 쓰면서 새삼 새벽과 수요, 금요기도회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07

바람과 빈 병

바람이 숲 속에 버려진 빈 병을 보았습니다.

"쓸쓸할 거야."

바람은 함께 놀아 주려고 빈 병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우 부수"

맑은 소리로 희파란을 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ild83/20191608953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도시 숲에 수많은 꿈이 산산조각 부서지고 있다.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내면은 날마다 시들어 말라가고 있다. 지 치고 시들어가는 그 공허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빈 병을 허 아렸던 바람의 마음일 것이다.

바람은 '기압의 변화에서 비롯하는 공기의 흐름' (wind)이기도 하고, '속이 빈 곳에 넣는 공기' (air)이기도 하며,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비라는 마음' (hope)이기도 하다. 내면의 빈 곳을 휘돌아 때로는 폭풍으로 수아주고 때로는 미풍으로 보듬으며 꿈으로 가득가득 채워주는 바람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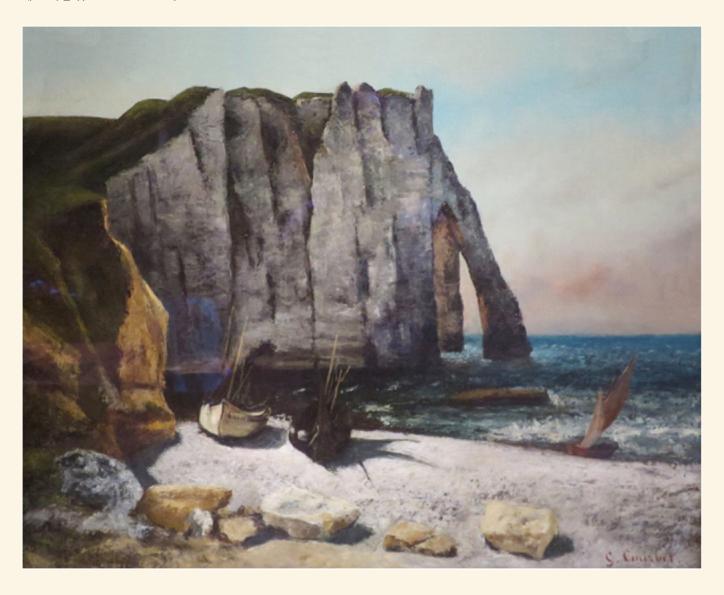
으늘도 바람은 쓸쓸함을 헤아리며 사방을 휘돈다. 우리의 빈 마음이 바람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도 '보오 보오' 맑은 휘파람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바위 같았던 아버지

귀스타브 쿠르베 (Gustave Courbet 1819-1877)

에트르타 절벽(The Cliffs at Etretat) 1869





처음 이 절벽을 만난 건 모네의 그림에 서였습니다. 필라미술관 벽에 걸린 이 절 벽은 시상식에 나온 연예인인 것처럼 화려하고 눈부셨습니다. 같은 절벽을 그렸는데 노톤 사이먼 (Norton Simon) 미술관에 걸린 쿠르베의 절벽은 장엄했고 거대한바위의 무게감에 저절로 입이 가려졌습니다. 모네의 그림에는 드넓게 펼쳐진 바다와 거대한바위의 섬세한 표현을 보고와!하는 감탄이 나오는데 쿠르베의 그림 속의절벽은 벌려진 입을 조용히 닫게 합니다.

쿠르베는 사실주의 작가의 거두였습니다. 낭만주의에 반대, 그림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드러내야 한다며 그 신념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 우선 이 그림은 깔끔 합니다 . 깔끔이라는 말은 보는 사람의 시 선을 끌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화 가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담아냅니다 .

햇살 반대편 언덕의 진한 어둠과 해변의 정결한 모래가 대조를 이룹니다. 어둠과 빛이 대조하듯 모래 위로 배 두 척의 배색 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이 그림에서 인상 적인 건 바로 앞에 나란히 놓인 바위들. 병 풍같이 늘어선 거대한 절벽 길이만큼 낮게 나란히 놓인 바위가 보는 이들에게 독특한 안정감을 전합니다. 이 절벽의 형상이 물 을 먹고 있는 코끼리라는 걸 알려준 것도 모네의 그림이 아니라 쿠르베의 그림이었 습니다.

그림을 보며 생각난 사람은 오십 중반에 코에 긴 호수를 끼고 사시던 아버지입니 다 . 위암으로 병상에서 목사 될 아들을 마 른 장작처럼 말라버린 두 손을 들며 반가 워하셨지요 . 왜 진작에 좀 더 깊이 사랑을 나누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불화했다. 밥벌이하며 아버지가 이해됐고 밥벌이에 좌절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였다. 그리고 자식 낳고 키우면서 아버지와 화해했다."이 글을 쓴 시인도 나처럼 저바위 병풍을 보고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였을까?

대학어린이집



▲ 통합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통합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및 에고그램 검사

대학어린이집은 지난 달 통합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간프로그램 오리엔테 이션을 갖고 해당되는 연간 계획을 안내하였다. 어린이집 미술치료사가 진행하는 TA 에고그램 검사와 미술작업도 진행하였는데 TA 에고그램에서 어른 자아, 초자아, 어린이 자아 존재가 양육과정에 어떤 기능과 연계되는지 알아보았다. 검사 실시 후 연계 활동으로 부정적 언어를 그림으로 의식화시켜 표현하고 대체 가능한 긍정적 언어를 함께 생각해보는 소통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을 종료하며 학부모들은 아이를 긍정적으로 대하는 걸 생각하였고 서로 공감하며 소통하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케 할 기회로 이러한 통합학부모 대상의 집단미술치료 과정 등을 다양하게 진행해 갈 예정이다.

[미술치료사 박미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 어르신들이 함께 만든 친환경 탈취제

커피찌꺼기 이용 탈취제 생산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2 일, 65 세 이상 어르신 40 명을 대상으로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탈취제를 생산하는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 사 업은 커피찌꺼기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이고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이 른바 ESG 경영에 부합된 사업이다.

지역 내 카페가 사용한 커피찌꺼기를 공급받아,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교육 및 훈련을 거쳐 만든 탈취제를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탈취제는 커피찌꺼기 가루와 밀가루 100% 로 만들어 인체에 전혀 무해하며 신발장 및 옷장, 냉장고 등 탈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노인 일자리의 중요성과 생활 용품의 환경적 가치 등의 공감대 형성을 기대한다. [복지서비스팀 이혜지 사회복지사]

꿈빛어린이집



▲ 영유아들이 연합으로 만든 설치미술 창작작품

'우리들의 날 '꿈빛 아트랜드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꿈빛어린이집은 '우리들의 날 '행사로 영유 아들의 사전 경험을 반영한 꿈빛 가족 공동작품 만들기를 운영하였다. 북서울시립미술관에서 선보인 '서도호의 설치미술작품 - 아트랜드 '를 모티브로 재현하며 가정과 연계시켜 영 · 유아 및 부모의 참여를 이끌었다.

영유아들은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재활용품과 점토를 활용해 상상 속의 우리 동네를 만들어 전시하고 다른 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전시는 2 주간 진행되었고 영유아마다 개성과 창의성이 가미된 작품을 보기위해 부모와 친지, 주변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 행사를 통해 작품 제작의 저변 확대는 물론 신비롭고 생동감 넘친 꿈빛 아트랜드를 감상하는 추억을 맛볼 수 있었다. [나리반 전보람 교사]

성서대학교회



▲ 말씀을 전하고 있는 노진산 목사

2023 춘계부흥성회

성서대학교회 '2023 춘계부흥성회'가 26~28 일까지 사흘간 진행되었다. 부흥회 강사는 노진산 (뉴욕 Living Faith Community Church·LFCC) 목사가 인도하였다. 첫째날 '복음의 부흥'둘째날은 '복음의 길'을 말씀하였고 이어서 '복음과 종교'및 '복음의 투유'주제로 말씀해 주었다.

노 목사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결론은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며 "주님이 약함으로 세상 구원을 원하였고 이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약함의 근본 원리"라고 말했다. 성도들은 춘계부흥성회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깊게이해하였고 앞으로는 복음에 합한자로서 신앙과 삶의 일치된 습관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우 목사]

상계백병원어립이집



▲ 성서대학교 풋살장에서 재미있는 놀이에 열중하는 유아들

어린이날 행사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날을 앞둔 5월 3~4일 이틀간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였다. 첫날 오전에는 어린이집에서 놀이 위주로 재미와 기쁨을 만끽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한국성서대학교 풋살장으로 이동하여 간식먹고, 공놀이, 비눗방울 놀이, 매니큐어, 판박이 놀이에 참여했다. 이튿날키즈카페에서 트램펄린, 범퍼카, 정글짐 타기와 소꿉놀이, 미용실 놀이, 병원놀이 등 다양한 체험으로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이틀 동안 실내·외에서 진행된 놀이에 "너무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놀이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큰소리로 외쳤다.

[맑은반 교사 이진아]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역민들이 홍보부스에 차려진 만화경 만들기에 참여 중인 모습

노원구 네버랜드 어린이날 축제

지난 7 일 롯데백화점 ~ 순복음교회 앞 대로에서 열린 '2023 년 노원구 어린이날 축제'가 열렸다. 본센터는 체험 부스에서'만화경 만들기 체험'과'클로버 부모 - 자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영유아 및 가족 약 1,900여명이 축제를 즐겼다.

'만화경 만들기 '는 부모에게 추억을, 아이들에게 신기한 경험을 안겨주는 자리였다.'클로버 부모 - 자녀 프로그램'은'이루어진 꿈 & 칠전팔기'주제로 풍선,비치볼, 종이컵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즐겼다.부모는 자녀의 장래 희망을 응원하며 도전정신을 칭찬해주고 자녀는 부모 격려와 응원에서 성취와 자존감을 맛보게 해 주었다.다양한 공연과 놀거리가 제공된'노원 네버랜드'축제가 코로나로 멈춰 있던 일상에 큰 활력을 전한 즐거운 축제의 시간이 됐다.[보육전문요원 윤정미]



상계 5 동어린이집



▲ 초록빛 울타리 안에서 유아들이 달리기를 즐기고 있다 .

실외놀이 '봄 햇살 받으며 운동장 달리기'

지난 8 일 어린이집 평가제를 위한 관찰자의 현장 방문이 있었다. 어린이 집 평가제란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데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건강,영양,교직원,안전 등 지표에 따라 관찰자가 각반의 운영 및 교사와 영유아간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평가한다.

상계 5 동 교직원들은 힘들었지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큰 보람을 삼고 입했다. 매일 아침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한 평가제가 아무런 지적사항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 평가 준비에 수고한 서로를 격려하며 한 공동체에 속한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고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는 어린이집이 될 것이다. [초록풀잎반 교사 강혜진]



늘사랑어린이집



▲ 공룡을 주제로 단장된 내부에서 놀이를 즐기는 유아들

어린이날 행사

늘사랑어린이집은 지난 4일을 열린어린이집의 날로 정하고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가졌다. 영유아들이 좋아하는 ' 공룡'을 주제로 어린이집 환경을 새롭게 단장시켜 흥미를 갖도록 하였다. 등원과 동시에 공룡에 관한 페인팅 스티커를 제공하였는데 영유아들은 어린 이집 입구에서부터 환호성을 지르며 시작되었다. 놀이방을 만들었는데 ' 습 자지 놀이와 화산 폭발 실험방 ', ' 볼풀공 놀이방 ',' 에어바운스 & 바이킹 놀이 ' 세 가지 테마형 공간방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영유아들은 이날 행사 전체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고 학부모들도 " 아이들이 즐겁게 놀며 좋아하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신나는반 권다은 교사]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횡

■ 기부기간 2023년 4월 21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군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384 048 3592 _ Routing No.: 121 000 248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 접수처 /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단	한국장학재	1,000만원(운영)	(사)한국성서선교회
원)	방진희(겸임교원	300만원(운영)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강우정 강진(총장) 235만원(운영) 김승옥(한국성서대학교) 190만원(운영,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3구좌 서명주 양연주 화도드림교회 3구자 박인혁 유수연 이상일 이소연 1구좌 김일섭

재학생 및 가족 0.5구좌 김샛별 6구좌 권순범 일 반 김정원(영) 유정선 이민규 금동옥 김민음 김소영 김은천 1구좌 김양순 선유정 안양희 전계회 1구좌 10구좌 1구좌 김명호 송수용 오미선 진윤승 김진영 박혜인 서 현 소명배 2구좌 전옥순 치사라 단체 및 기관 손진규 유미정 이용원 전한나 5구좌 이재현 김승옥 의정부좋은나무교회 14.1구좌 3구좌

정인철 홍정심 교직원 및 가족 미사목민교회 부설기괸 5구좌 김연주 소경숙 신화영 안선례 김미영 박덕자 2구좌 권효진 유정현 장윤정 1구좌 3구좌

수원교회

기부자 명단

3구좌

서명주 윤문순 이다윤 이성은

백명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동문 및 가족

백향목 변지유 서성식 서유미 **조은경 주민자 주성형 주진**우 5천원 김샛별 김시내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지영환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1만원 강나경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윤석 최인호 최종운 강애솔 강옥경 강은해 강재현 송민규 송바울 송성은 송순덕 강정민 강정희 강주옥 강춘자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고대운 고성호 고재민 곽미화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신종수 신지은 신혜영 심두한 권순길 권순실 권순웅 권슬기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권유철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엄미자 엄보영 여지은 연현숙 금동옥 금필규 김가영 김다솔 오세천 오채엽 용이름 우현아 김도훈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수정 유영진 유주연 유주홍 유영원 김무엘 김민정 김믿음 김병렬 김선근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윤정숙 윤지준 윤현중 윤혜자 김수연 김수정 김순녀 김순덕 이광석 이권호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요셉 김유미 김유현 김은경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2구좌

김은실 전영호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김재현 김정은 김정희 김지선 이용철 이유주 이정숙 이정익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이정훈 이주희 이진경 이진리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혜영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해렬 김화석 나선영 남범수 남성휘 이현섭 이현지 이혜진 이화연 노명민 노한나 도 만 류요한 이환기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류한나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장윤국 문기철 문성령 문정혜 박경수 장익봉 장익심 장희남 전명수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이현우 박경옥 박문홍 박성준 박수진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임수경 임수정 임은희 임주영 박수현 박순임 박아론 박윤복 전소영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장은경 장재경 장재원 전수경 박재숙 박재신 박종주 박주옥 정금숙 정다연 정선도 정소윤 전영희 정영용 정옥순 정 완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향식 정영교 정윤미 정은희 정인철 조은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허춘선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정희영 조믿음 조소연 조수빈 홍진옥 홍혜주 황인숙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등대교회

서명주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양연선 우종엽 유아랑 윤문순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이길순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숙 이안나 이예람 이윤성 이주연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이현지 임연식 장영훈 전지혜 황승호 황예린 황형록 정슬기 조하은 최선경 최소린 설에스더 신에스더 최양서 탁현정 좋은교회 열매맺는교회 황보혜영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5만원 김동완 김준오 김 진 김진경 2만원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미나 김미향 김민지 김복녀 김성훈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박인순 김연정 김연주 김영래 김영주 박지혜 송복순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광삼 이병철 이부호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이지은 천유림 최경환 최송희 김태분 노민지 류충열 문홍철 벧엘성서동우회 박상수 박재송 박주영 박혜숙 6만원 정동주 10만원 김동관 김선옥 김장교 김종숙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송인성 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왕용분 유미영 유의숙 윤광길 11만원 유선미 윤서희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12만원 성낙표 15만원 박빛나 이아름 이영림 이영애 이우진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100만원 이례장학

이례장학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권명희 김민서 김양순 김혜미 선동하 선유정 심희정 안양희 양은성 양주향 이광승 이동기 이성란 이혜정 임동화 장연정 전계화 지중배 2만원 김선옥 김애선 김형태 박명규

150만원(장학) 103만원(운영,장학)

100만원(장학)

3만원 고은영 공복순 공지은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윤정

김재임 민승철 박기혁 반세호

기부자 명단

3만원 배송송 승의로 안타다	송동식 송세희 신한우 연성희 이마리 이미영 이은영 이진아 장영순 전옥순 정해숙 조율이 천광호 함은애	임재택 호한나 2만원 진양희 홍옥주 3만원 권효진 문유나 박천순 변송이 안미희 유정현 장윤정	2만원 금촌성서교회 3만원 태광성서교회/푸른동산교회 10만원 다빚교회/삼일성서교회 수원교회	한춘경 황영수/위샐러듀 2만원 강명옥 길옥석 김동석 김성래 김윤숙 서병준 서성원 이일신 정주아 정형채 조혜령 최국열
9번원 경쟁자 강당한 반석되 박승종 인용한 이제한 이지형 형제명 20만원 박지흥 1만원 강산에 취한하는 권단의 걸대명 간사에 보다는				
인종한 이재한 이지형 하이의 명이 10만	4만원 연성희 정해숙	5만원 김선화 박연희 신영자 이인경	2만원 김일섭	
30만원 번지흥 1만원 2년에도 자리 2년에도 자리 2년에도 가입니다 2년에도 자리 1만원 2년에도 자리 2년에도 자리 2년에도 자리 1만원 2년에도 자리 2년에도 자리 1만원 2년에도 자리 2년에도 2년에도 자리 1만원 2년에도 자리 2년에도 2년에도 2년에도 2년에도 2년에도 2년에도 2년에도 2년에도				
201일 기상에 경하나 고민의 그미에 기상에 대한 기상에 경하나 고민의 그미에 기상에 대한 기상에 경하나 기관에 기상에 기상에 기상에 기상에 기상에 기상에 기상에 기상에 기상에 기상				
1만원 소이의 이유는 기관에 대한 기	30만원 막시용			
1만원 강선에 되는다 변화를 대한 2년에 보고를 보는데 기가	교직원 및 가족			. –
고마한 김유리 교육에 되었는 기관에 생각하여 보다 기관에 가장 보고를 기관에		3322 —32		
		권선제일교회	4만원 권정숙	30만원 박순정
문으의 박임료 박리자 박인지 막임자 반영의 무점을 설명성 이문자 이문양 암수이 당점은 안당성 전점적 점점에 자꾸난 만급해 최비명 취임인 오시구고조 간원, 경험에 자꾸난 만급해 최비명 취임인 오시구고조 간원, 경험에 자꾸난 만급해 기반원 경로 오성대 정해만 함점은 만역 보험의 가장 경험에 자꾸난 만급해 기반원 경로 오성대 정해만 함점은 만역 부대를 해비성 당한 그런 고입점을 존세대 정한 반강은 만역 부대를 해비성 안 호 오성을 주성에 장리실 자꾸산 건설을 점점에 대접은 막은두 박대를 해비성 안 호 오성을 주성에 장리실 자꾸산 전설을 점점에 대접은 막은두 박대를 해비성 안 호 오성을 주성에 장리실 자꾸산 건설을 점점에 대접은 나무는 박대를 해비성 반강호 안성은 가장속 회사의 보험수 최보실 전성인 자꾸산 반장수 최보실 전성인 자꾸산 반장수 최보실 전성인 자꾸산 반장수 기간원 기상에 보고로 기안원 경험에 자꾸산 보고로 기안원 기상을 당하여 기관에 가꾸산 보고로 기상에 가꾸산 보고로 기산에 가꾸산 보고로 기산에 가꾸산 보고로 기산에 기산을 다는 기산에 가꾸산 보고로 기산에 보고로 기산에 가꾸산 보고로 기산에 가관				60만원 이 홍
마				ctal of stat
응승의 유상조 관점에 이루자 이용적 임수이 경우선 전쟁에 전쟁에 가장이 변경을 이용하고 함께 보고를 보는 기간에 보고를				
이온의 임수이 강점한 전쟁선 전쟁선 기관에 대해				
기의 하는인 요시다고도 2만의 강단점 강당한 고픈 전민주 번서유 라타즌 감독재 간세점 강단을 강단호 문지에 만경은 반는는 비타용 배인당 안 호 오월속 유성한 경임장 장자슨 전염호 설심에 교육 소설비 화난역 한성우 전염상 장점 장자슨 경원 바용수 의만의 건강점 강한 고프로 보이지 전염호 성소에 교육 소설비 화난역 한성우 한점을 장자는 전염호 성소에 교육 소설비 화난역 한성우 한점을 장자는 전염호 성소에 교육 소설비 화난역 한성우 한점을 장자는 전염호 성소에 교육 소설비 화난역 한성우 한점을 지금 전원 보육수 전염 강점 자수 전염호 성소에 교육 소설비 화난연 한점수 지원호 경원 바용수 의만의 건강점 강하는 건설 경제 반성함 박성병 박이역 산제윤 형렴형 전신의 유연선 문제인 이순한 장자용 주언진 1만원 경기 경설 경기에 반성함 기원 기	이은영 임수아 장경순 전광선	1만원 서효정		/맘키즈푸드/목양교회
고만원 강인경 강소형 고대는 센다주				
전시후 만남은 전쟁에 전쟁은 박은두 마에 대용은 박은두 마에 대용은 바는두 마네용 배단한 안 호 소설속 유사인 경진을 장자는 20만원 서문교회 성서대학교회 경원 반당수 한점을 장자는 20만원 사람교회 성서대학교회 경원 반당수 한점을 하지는 20만원 사람교회 상원 바용수 한점을 합점하여 주는다는 기존에 전혀 정고는 20만원 사람교회 상사 마이스 전 정고는 20만원 관심을 하지는 20만원 관심을 지원하여 20만의 구역한 기계				
김은식 김정호 문자에 민경은 박은주 박태용 배인정 안 20만원 서문교회 성 20만원 서문교회 등의 충송 유양현 외경정 장지순 전병호 점순에 정은상 조합을 하는 한 영향을 이 전에 함께 수 1만원 경쟁 기관 선택을 함시한 한 영향을 이 전에 위우수인 의해를 이 전에 기관 수 1만원 강경에 고상한 의원 기관 이 대한 이 전철 이 자수 이 진호 기관 이 대한 이 전철 이 자수 이 진호 기관 이 대한 이 전철 이 자수 이 진호 기관 이 대한 이 전철 이 자수 이 전호 기관 수 1만원 기약을 기관 이 대한 이 전철 이 자수 이 진호 기관 이 대한 이 전철 이 자수 이 진호 기관 이 대한 이 전철 이 자수 이 진호 기관 이 대한 이 전철 이 자수 이 진호 기관 이 대한 이 전철 이 자수 이 전호 기관 수 1만원 기약을 기관 이 대한 이 전철 이 자수 이 진호 기관 이 기관		1		,,,
변은주 반태용 배민정 안 호 으월층 유산한 경검정 전기에 유산의 조합년 원인로 점산에 용안상 조합년 회난형 한당한 한점속 의원 권보선 김정한 반대학 이 한 전기를 이가는 이대명 이대한 이정할 이지수 이진호 원체진 이소한 정지용 주인적 윤체진 이소한 정지용 주인적 유미나 이상일 이문광 장정순 연인원 권순범 기원의 김병학 기사 인단이 유미나 이상일 이문광 장정순 연인원 권순범 기원의 김병학 기사 인단이 유미나 이상일 이문광 장정순 연인원 권순범 기원의 김학학 기원의 기원의 기원의 기원의 기원의 기원의 기원의 기원의 기원의 기원의				
전성호 정순애 정은상 조활남 최단원 한성인 환청성 박인력				
화난명 환성는 한점수 1만명 경험 전경을 보이는 이대명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전호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성서대학교회	로회	3만원 / 꿈꾸는 교회/우리교회
전우선 김하현 박성범 박인력		:= :-		
신재윤 양희정 여진희 유수면 20년 정지용 추연진 1만8천일 고강숙 고미수 2만5 15만원 이해선 2만9 16만원 14만원 14만원 14만원 14만원 14만원 14만원 12만의 수 12등적 12만원 14만원 15만원 이해선 2만만원 수 12만의 수병을 보고하는 1만원 12만원 2만원 수병을 보고하는 1만원 12만원 2만원 수병을 1만원 2만원 1만원 1만원 12만원 12만원 1만원 12만원 12만원		: : :		
유해진 이산연 정지용 추연진 1만용한원 고경속 고미숙 고디에 김대현 건강적 기대원				
4만원 김덕원 5만권 구광면 김미숙 김병수 김성호 간원 김미숙 김병수 김성호 감원 김병동 신지수 양단아 유미나 이상일 이은광 정정순 6만원 권순범 임환석 10만원 강정원 교미숙 곡규상 김덕현 김도경 김성경 김소희 김승호 건청경 김소희 김수호 건성호 김성호 김소희 김수호 건청숙 김주아 김막다 김한학 교토 김청형 김소희 김수호 건청숙 김주아 김막다 김한학 의본 인병숙 (양화 안당후 양태환 오경모 인명희 이상숙 이상과 이종목 인명희 유정선 이민구 이성아 이소정 이슬기 정성희 정인수 조현진 조해경 최사망 회명태 최우열 최근의 한영수 한우석 호선고 김정현 건강의 김정원 정인수 조현진 조해경 최사망 회명태 최우열 최근의 한영수 한우석 환성보 경우로 장진희 전에진 포병하 조명희 조정선 조현진 조해경 최사망 회명대 최우열 최근의 한경호 기당원 김경한 건강을 김원하 건강원(기상원) 11만원 최지은 13만원 강입식 김종완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권경한 김은호 김희수 건강선 이한영 20만원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정해덕 정화인 조용경 20만원 김창원 비 선 박태수 정해덕 정화인 조용경 20만원 김창원 나 선택수 정하역 건강은 김리호 김전호 김인호 김산수 원경안 김논등 김현석 민은옥 유정선 유병한 기공신 이윤봉 최선희 100만원 강경은 이경인 이경인 이공원 최선희 10만원 김송은 김의성 강근로 정신화 김양원 김리어 기상설 의용 전우 전원 기원에 기정원에 임원이 환경 기장원 기원에 기정원에 의원이 기상원 기원에 기정원에 의원이 기상원 기원에 기정원에 의원이 기상원 기원에 기정원에 의원이 기상원 기원에 기원에 기원에 기원에 기원에 기원에 기원에 기원에 기원에 기원				
김원빈 김현동 신지수 양단이 유미나 이상일 이은광 장정순 원헌미 김해진 김한희 박상희 박성의 박은석 박수를 한미경 서영우 10만원 로마스 학교에 보는소 박수를 방미경 서영우 2명도 김정정 김소희 김승을 인물을 인물성 이용을 이용적 이용을 이용적 이용을 이용적 이외적 이용을 이용적 이외적 이외적 이외적 이외적 의장을 기본원 고화를 가는 주는 경험에 기본 기관원 기반원 2회적 교육 2만원 홍성일 1만원 2회적 2호로의 /성목공인교회/소원교회 /성목공인교회/소원교회 1만원 2화점 2등로 장진희 함께 전형 신금주 안청선 오은주 원명희 유장선 이단과 이성의 이정속 이정적 이정적 이외적 의장을 기본원 공리회 2만원 2차로 장진희 함께 전형 신금주 안청선 오은주 원명희 유장선 이단과 이성의 이주를 임성일 장근문 장진희 왕에고 조현진 최당을 하면수 한수식 출소을 김정원(신) 김정원(영) 의본 최당은 조현진 최강은 조현진 최안숙 하은의 한성실 황선모 1만원 2회적 2호로의 1만원 2회적 2호로의 /상목공인교회/소원교회 /성목공인교회/소원교회 기원인 대원 2회적 2회적 2월적 2등은 전환적 2학원 환경교회 20만원 (사)한국성서선교회 2만원 홍성일 발반 1만원 구텔레 권숙영 관청적 김대석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양권 김유로 김인화 1점는수 유청선 공원이 학교로 보고를 기원된다 보고를 기원된다 보고를 기원되었다는 보세건 기은실 이정의 최강회 최대만 최강회 보고의 1상을 보고의 보고의 20만원 (사)한국성서선교회 150만원 (사)한국성서선교회 150만원 (사)한국성서선교회 150만원 2구점 관경 문해영 박지성 박하숙 송수운 안비속 오마다 오미선 오지혜 오현수 유해면 유화실 요구의 오미스 인구은 유해연 유화실 요구의 오미스 인구은 유한은 아마는 이민은 이사랑 이원의 이상회 이상의				
유미나 이상일 이은광 장정순				/사랑샘교회
8만원 권순범 7만원 일환석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곡규상 김덕현 전년경 김성경 김소희 김승호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단경 김성경 김소희 김승호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한숙 김형이 문무열 박성환 배진형 신금주 안청선 오은주 원명희 유정선 이민규 이상아 이소정 이슬기 정성희 장인순 조현진 조해경 최사당 최양태 최육일 최은희 현영수 현우석 홍소윤 김정왕(신) 김정원(영) 11만원 최지은 13만원 김영원 김종단 한진호 13만원 김영원 김종단 한진호 13만원 김영원 대 공선이 김영영(영) 11만원 김영원 김종단 한진호 13만원 김영원 대 공선이 김영영(영) 13만원 김영원 대 공선이 김영영(영) 13만원 김영원 대 공선이 김영영(영) 13만원 김영원 대 공선이 김정당(영) 13만원 김영원 대 공연의 대 공선 원조은 기의수 인 의 공선 기장인 이 의 공선 기장인 의 공선 기장인 이 의 공선 기장인 의 공선이 기장인 의 공선이 기장인 의 공선이 기장인의 기장인의 기장인의 기장인의 인 의 공선이 기장인의 기장인의 기장인의 기장인의 기장인의 기장인의 기장인의 기장인의				
1만원				
1만원 강정원 고미숙 곽규상 김덕현 김도경 김성경 김소화 김송호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한광 김현옥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비판형 신금주 안창선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성아 이소적 이슬기 강성희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청제된 장흥림 정도유 정선희 전체진 최인을 장근로 장진희 청혜된 장흥림 정도유 정선희 경제진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청제인 조흥희 한성수 현우석 홍소윤 김정원(사) 김정원(영) 1만원 최지은 1만원 김희경 3만원 강일석 김증완 한진호 1만원 건경숙 진은숙 진효숙 2만7원 김형인 김증완 한진호 1만원 건경숙 진은숙 진효숙 2만1원 김하는 강실석 김증완 한진호 1만원 건경숙 진은숙 진효숙 2만1원 김정원 1인과 김인과 김인과 김인과 김영한 김민과 김인과 김인과 김용환 김미과 김법과 김양권 김병호 김미과 김법실 김양권 김양정 입기를 입기를 김한수 (사원교회/구리성광교회 /산복존앙교회/소망교회 /생복증안교회/소망교회 /생복증안교회/소망교회 /생복증안교회/상명교회 /생복증안교회/상명교회 /생복증안교회/상명교회 /생목증안교회/상명교회 /생목증안교회/상명교회 /생목증인교회/항명교회 /생목증인교회/항명교회 /생목증인교회/항명교회 /생목증인교회/항명교회 /생목증인교회/항명교회 /생목증인교회/항명교회 /생목증인교회/항명교회 /생목증인교회/항면교회/ (취)소원기건 30만원 한국장학재단 일 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대석 김명호 김미과 김법실 김양권 김유범 김은경 김인호 김찬수 김희건 노은경 문해영 박미속 학명의 박영희 박지상 배학숙 송수용 안배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해연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관한 이민우 이사랑 이상명 이상태 이성회 이우은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임숙자 장명종 조동빈 조목장 오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옥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성아 이소정 이슬기 장성희 장인순 조현진 조해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한영수 현우석 홍소요 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강희경 조현진 조해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한영수 현우석 홍소요 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강희경 조현진 최인숙 하은희 한성실 황성모 2만가원 김영한 김은미 유상호 입용택 3만6원 강급서 건흥관 김희현 보신 보다는 안정선 이현영 2만가원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이현영 2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이현영 2만원 경우집 간호 김천수 신청선 수기업 경후진 조윤경 3만원 강대수 정취디 경후인 김동산 우형창 5만원 강대수 정취디 정취진 조윤경 103만원 방진희 103만원 방진희 103만원 방진희 103만원 방진희 103만원 항기에 지원에 기공을 이경선 이경선 103만원 방진희 103만원 방진희 103만원 양기에 기공을 이경선 기공등 김현석 민윤옥 박지석 송재철 이숙영 최선희 103만원 방진희 103만원 방진희 103만원 양진화 기공등 전형 200만원 (사)한국성서선교회 103만원 강대수 김희권 노은경 문학역 리우석 김희권 노은경 문학영 비미속 박이미 박영희 박영희 박영희 박지성 박하수 송수용 안해수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해연 유화실 유수현 요운영 이관현 이민우 이사랑 이성영 이성태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임속자 장영종 조롱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동배 진윤승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곽규상 김덕현		1만원 성경아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단규 이성아 이소정 이슬기 장성희 장인순 조현진 조례경 최사랑 최영태 최유열 최은희 한영수 현우석 홍소윤 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최지은 13만원 강급석 김증완 한진호 15만원 강규석 권경완 김존의 김희수 안정선 이한영 20만원 김창원 박 선 박대수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35만원 하는희 한성원 25만원 기장 등 임지영 35만원 한지의 15만원 기장 등 임지영 35만원 한지의 15만원 기장 등 임지영 35만원 한지의 15만원 기장 등 임지영 35만원 한지의 15만원 기장 등 인지영 35만원 한지의 15만원 기장 등 인지영 35만원 한국징학재단 15만원 기장 기원 기상을 임용택 37만원 기장 기원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성이 이소청 이슬기 장성희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렬 최은희 한영수 현우석 홍소요 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최지은 13만원 강급석 김종완 한진호 15만원 지경숙 진은숙 진효숙 2만원 홍성일 2만원 홍성일 1만원 김희경 5성교회 1만원 진경숙 진은숙 진효숙 2만원 홍성일 150만원 한국자학째단 1000만원 (사)한국성사선교회 150만원 (자)한국성사선교회 150만원 (사)한국성사선교회 150만원 (자)한국성사선교회 150만원 (자)전域 (자)한국성사선교회 150만원 (자)전域 (자		9	1	, ,
변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성아 이소정 이슬기 장성희 장인순 조현진 점해린 장흥림 정도유 정선희 장혜민 장흥림 정도유 정선희 조형선 조현진 조해경 최사랑 최영태 청예진 조병하 조영희 조정선 조현진 최인숙 한신숙 흥소윤 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최지은 13만원 강대성 김중완 한진호 13만원 강대성 김중완 한진호 15만원 강대성 건경안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이한영 20만원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4만5천원 권경만 김동선 유형창 5만4천 이강동 임지영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35만원 최선희 병진희 9만원 강성훈 길용희 김웅기 김원태 박진석 우조형 최선희 10명은 인국수 유관실 이숙영 최선희 10명은 인국수 유관실 10명은 지원적 인고 25만원 이강동 인지영 10명은 기상후 일용 최선희 10명은 기상후 임본 10명은 기상후 인구 20명은 기상후 인구 20명은 기상후 21명으로 12명으로 1				
이스정 이슬기 장성희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시랑 최영태 청예진 조병하 조영희 조정선 호성교회 1만원 김희경 호성교회 20만원 (주)소원기건 30만원 한민제일교회 항성모 항성모 2만원 흥성일 1만원 2만전원인 한국장학재단 1만원 구필혜 권숙영 권창석 김대석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강권 1만원 기관원 기관원 기관원 기관원 기관원 기관원 기관원 기관원 기관원 기관				
최육열 최은희 한영수 현우석 홍소윤 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최지은 13만원 강일석 김중완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이한영 20만원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35만원 최선희 103만원 방진희 103만원 방진희 103만원 당구정강 25만원 김승옥 25만원 김승옥 25만원 김승옥 25만원 김승옥 25만원 기관 25만원 기원 25만원 기				, , ,
*** ***		정예진 조병하 조영희 조정선	효성교회	
11만원 최지은 13만원 강일석 김중완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이한영 20만원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35만원 최선희 103만원 방진희 103만원 방진희 103만원 당구정 강우정 강 진 13만원 기관 13만원 2만7천원 김영한 김은미 유상호 임용택 2만7필예 권숙영 권창석 김대석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김희권 노은경 문해영 박미숙 보석이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송수용 안해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해연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관헌 이민우 이사랑 이성영 이성태 이성희 회대만 최정권 최지웅 한진호 13만원 성서대학교회 1000만원 (사)한국성서선교회 4년 20230421~20230520) 2취(20230421~20230520) 2 하세(20230421~20230520) 2 하세(20220301~20230520) 163,291,275 163,291,275 164 원주 윤준영 이관헌 이민우 이사랑 이성영 이성태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임숙자 장명웅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13만원 강일석 김중완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이한영 20만원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35만원 최선희 103만원 방진희 103만원 방진희 103만원 강구성 공주 원양 전 인공독 13만원 기관 13만원 기관 13만원 기관 13만원 기관 15만원 기관 13만원 기관 15만원 기관 13만원 기관 13만원 기관 13만원 기관 13만원 기관 13만원 기관 13만원 기관 15만원 지금 15만원 13만원 기관 15만원 기관 13만원 기관 15만원 13만원 기관 15만원 기관 13만원 기관 15만원 13만원 성서대학교회 103만원 성서대학교회 103만원 성서대학교회 103만원 성서대학교회 103만원 기관 13만원 기관 15만원 13만원 15만의 지금 15만원 13만원 15만의 지금 15만원 15만의 지금 15만의 12만의 지금 15만의 기급 15만의 12만의 지금 15만의 기급 15만의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이한영				1000년년 (시)원칙용시년교회
20만원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4만5천원 권경만 김동선 유형창 4만5천원 건경만 김동선 유형창 5만4천원 7분이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4만5천원 전경만 김동선 유형창 4만5천원 35만원 최선희 103만원 방진희 9만원 감상후 길용희 김웅기 김원태 박세건 기은실 이정임 최강희 최대만 최정권 최지웅 한진호 13만원 각우정.강 진 13만원 박오오 13만원 성서대학교회 20만원 성서대학교회 조건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정휘진 조윤경 4만5천원 권경만 김동선 유형창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5만4천원 강유진 김문응 김현석 민윤옥 4만4성 오지혜 오현숙 유해연 유화실 103만원 방진희 9만원 강성훈 길용희 김웅기 김원태 박세건 기은실 이정임 최강희 31만원 각우정.강 진 4만5천원 학원으로 13만원 박온오 13만원 성서대학교회 20만원 정서대학교회 20만원 조건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소계(20230421~20230520)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5만4천원 강유진 김문응 김현석 민윤옥 송수용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163,291,278 35만원 최선희 박진석 송재철 이숙영 최선희 2지혜 오현숙 유해연 유화실 103만원 방진희 9만원 강성훈 길용희 김웅기 김원태 원수현 윤준영 이관헌 이민우 190만원 김승옥 박세건 기은실 이정임 최강희 3대만 최정권 최지응 한진호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13만원 박온오 임숙자 장명웅 조동빈 조목장 부설기관 300만원 성서대학교회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50,256,952
35만원 최선희 박진석 송재철 이숙영 최선희 오지혜 오현숙 유해연 유화실 103만원 방진희 9만원 강성훈 길용희 김웅기 김원태 원수현 윤준영 이관헌 이민우 190만원 김승옥 박세건 기은실 이정임 최강희 이사랑 이성영 이성태 이성희 235만원 강우정.강 진 최대만 최정권 최지웅 한진호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13만원 박온오 임숙자 장명웅 조동빈 조목장 부설기관 300만원 성서대학교회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10 1 10 1 10 1 11	
190만원 김승옥 박세건 기은실 이정임 최강희 이사랑 이성영 이성태 이성희 235만원 강우정.강 진 최대만 최정권 최지응 한진호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13만원 박온오 임숙자 장명웅 조동빈 조목장 부설기관 300만원 성서대학교회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100,201,270
235만원 강우정.강 진 최대만 최정권 최지웅 한진호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13만원 박온오 임숙자 장명웅 조동빈 조목장 부설기관 300만원 성서대학교회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103만원 방진희			
13만원 박온오 임숙자 장명웅 조동빈 조목장 부설기관 300만원 성서대학교회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부설기관 300만원 성서대학교회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235만원 강우정.강 진			
	부설기관			



23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K선교 시대를 열어갈 초교파 복음주의 전문 인력 양성

교회와 일터 현장을 위한 전문평신도 · 예비목회자 모집 여성목사 안수가능

lome over into

모집학과 신학대학원(석사) 목회학

학업,일 병행 주3일 수업(야간 2일 대면, 1일 비대면)

오랜역사 북서울 유일 초교파 복음주의 신대원

<mark>저렴한등록금</mark> 매학기 실납부액 약 280만원(다양한 장학 혜택)

접수기간 **23.6.19(월) ~ 6.23(금) 16**시

입학문의 02-950-5456, 5464

편리한교통 7호선 중계역(한국성서대역) 1번출구 도보 3분

VOITE PART